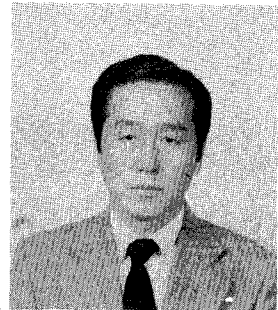


## 동남아시아 각국의 축산 (V)

정 선 부  
(축산시험장 축산  
연구관 동학박사)



### 6. 사우디아라비아의 축산

#### 가. 일반현황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나라이다. 왜냐하면 중동지방에 진출하고 있는 건설 기술자의 대부분이 사우디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수는 공사수주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약 100,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사우디의 농업개발 참여가 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1981년 12월부터 1982년 1월 사이에 사우디에 주재하고 있을 당시의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연간 수주액이 70억 달러인 것을 보아도 사우디가 우리나라 건설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원유의 대부분을 사우디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사우디와 우리나라와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나라의 국토면적은 2백 25만km<sup>2</sup>로 한반도의 10배, 대한민국 국토의 22.5배에 달하고 있으며, 인구는 9백 52만인으로서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도 되지 못하므로 국민 1인당 국토면적은 우리나라의 94.6배에 달하고 있다. 이 나라의 수도는 「리아드」로서 수도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불과 90만명에 지나지 않으며, 이 나라의 농업인구는 사우디인이 79만 1천명, 외국인인 13만 2천인으로 농업인구가 전체인구의 10% 이하이다. 5~9월의 평균기온이 35°C, 최고기온은 50°C이며, 12~2월의 평균기온은 14~20°C로 우리나라 기온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더운 기후이다. 이해 반해 연간 강우량은 100~150mm로 우리나라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건조한 나라이다. 이 나라는 오스렘교가 국교로 되어 있어 전국민이 이 교를 믿고 있는 관계로 축산업중 양계, 낙농, 비육우만이 있고 양돈업은 전혀 볼 수 없다.

#### 나. 사우디아라비아의 농업 정책

사우디아라비아는 방대한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이 국토에는 지하에 원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어 국가재정은 원유 수출로 충당하고도 남는 돈이 많아 공공주택을 지어서 국민들에게 무료 분양하고 있다. 주택건설은 이제 거의 완성단계에 돌입하고 있어 많은 외화가 남아 돌며, 모든 공산품, 식량 뿐만 아니라 음료수까지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우기 이 나라는 한때 석유의 무기화로 전 세계에 석유파동을 선도해 온 나라이기 때문에 장차 곡물

생산국에서 식량의 무기화를 도모할 경우를 우려하고 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식량자급에 국정의 최우선 지표를 삼고 현재 남아 도는 외화를 사우디 농업개발계획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농장 개설에 필요한 모든 시설 예를 들면 지하수 판정굴착, 축산시설비, 농장개간비, 농산물 가공시설, 농기계, 차량, 양수기 수입에 50%는 보조해 주고 50%는 장기 무이자로 대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방대한 토지에 기술과 인력만 도입하면 얼마든지 농업이나 축산을 경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축산에 있어서는 농후사료비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일반 농업보다 축산이 유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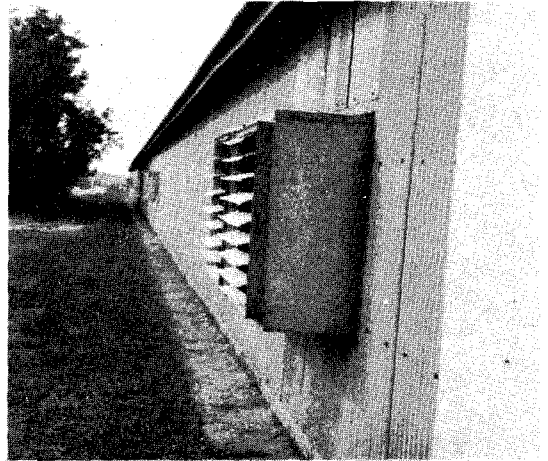
#### 다. 양계산업

사우디의 양계산업은 고온 건조한 기상조건 하에서도 성공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앞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될 축산업 중의 하나이다. 이 나라의 계란 자급율은 65% 정도, 닭고기의 자급율은 30% 미만이나, 식생활 양식의 변천에 따른 양계 생산을 수요증가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양계 생산물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 나라의 양계장은 산란계 10만수에서 연간 계란 2천 5백만개 생산, 육계 연간 2백 50만수 생산규모가 최적규모로 되어 있다.

처음 이 나라에서 양계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사우디 본토인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사우디 본토인은 대부분이 문명인이고 양계에 대한 기술과 경험이 없으므로 외국인이 사업설계, 양계장 시설, 종계 및 실용계의 구입, 양계장 경영, 생산물의 판매까지 모든 사업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나라는 외국인이 사우디 재산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사업주는 사우디 사람이어야 하고, 이렇게 하여야만 사우디 정부로부터 각종 보조금과 융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나라에서 이태리, 독일, 덴마크 등의 여러 선진국들이 양계업을 위임받아 경영하고 있는데, 이들의 사업주와 계약에 의하여 수익금을 50:50으로 배정받고 있다.

이곳의 양계산업은 우리나라의 양계산업과는



스무창계사를 설치하여 온도를 유지시킨다.

달리 닭의 사양관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최현대식 자동관리 기계를 설치하여 완전 자동화로 경영하고 있어 양계 기술자라고 하면 사양관리 계획수립, 사료배합표 작성, 자동관리 기계조작, 방역계획수립 등을 주로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양계경영에 있어서 외국인의 인적구성을 보면 경영의 총 책임자는 대학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양계에 대한 경험이 많고 모든 일처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각 부서별로 산란계관리 책임자, 육계관리 책임자, 사료공장 책임자 등 각 1인씩 두며, 이들은 모두 양계경영에 참여하는 나라에서 채용하고, 그 밑에 실제 관리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 3국인을 채용하고 있다. 제 3국인은 월 150~300달러 정도의 저임금으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면에서 유리하다 한다. 제 3국인으로 채용되는 나라는 이집트, 스리랑카, 파키스탄, 오만, 등 사우디 인접 국가에서 모집하고 있었다.

계사는 모두 무창계사로 설치하여 외부의 고온으로부터 닭을 보호하여 계사 내부의 닭으로부터 발생하는 열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사 안에 물을 안개와 같이 분무하면 기화열 때문에 계사 내부를 닭이 생활하기에 적당한 온도로 유지시킬 수 있다.

양계생산물의 판매에 있어 계란 및 닭고기의 가격은 항상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공

급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연초에 고지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계란은 30개들이 난좌에 넣어 이 값이 사우디 현지 화폐로 11 '리알', 한국화폐로는 2,200원이며 1개당은 73원 정도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계란을 항상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품질이 되므로 시장에 계란이 있을 때는 몇일분을 구입하는 습관이 있었다. 또한 계란은 크기에 따라서 값에 차이가 없이 크고 작은것 구별없이 모든 계란은 같은 값에 거래되고 있다. 계란 1개당 73원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약간 비싼편이지만 산란계에서 농후사료비가 전체 생산비의 70~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농후사료비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계란 1개 생산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게 소요된다. 따라서 산란계의 수익성은 대단히 높다.

필자가 1982년초 사우디의 농업개발계획 -참

여를 위해 현지 조사한 결과 산란계 10만 수를 경영할 경우 연간 조수입은 18,9억원이고 여기에서 사료비 등 경영비 7억 3천 1백 70만원을 빼고 연간 약 10억 6천 9백 20만원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산란계 1수당 연간 수입이 약 10,000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계산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사양관리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계분 값은 채소, 과수 등의 재배에 쓰이므로 한차에 100,000원이 넘어 양계경영이 유리하며, 공해문제에 대한 염려도 없다. 한편 닭고기의 가격은 생체 1kg당 우리나라 돈으로 1,077원 인데 이 가격은 연중 변동이 없으며,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한다. 결과적으로 생체 1kg의 생산비는 800원 정도이므로 1수당 육용계 1마리당 약 50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품질에서 단연 앞선 平農의 부화기 PUMISET

- PUMISET은 현대적 부화기능을 갖춘 기계입니다.
- 더욱 새로운 품질로 개선되었습니다.
- PUMISET은 귀하에게 더욱 많은 이익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 FRP판넬 캐비닛                      • PP난좌 및 철재내부
- 정밀한 자동제어                      • 세련된 기계



平農畜機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가곡리 536-1

TEL : 송탄 (1333) 4-7484

서울 (야간) 803-6724